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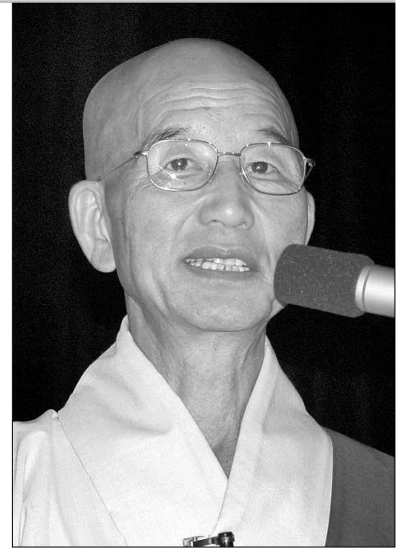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2강 : 참회 새로워지는 삶-신통제일 목건련

강사: 정무 스님 (석남사 회주)

공동주최: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2005.10.12 / 장소: 광주 KT정보센터



효가 살아야 가정 · 나라 · 인류가 산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낸 효심입니다.

목건련 존자의 어렸을 때 이름은 나복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 청제 부인과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줄어들기 시작해 하루는 나복이 재산을 3등분한 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어머니 생활비로 쓰고, 하나는 제가 장사 밑천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버님을 위해 사문을 모셔다가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복이 외국으로 장사를 떠나자 청제 부인은 신바람이 나서 매일 잔치를 열어 사문에게 공양 올려야 할 재산까지 탕진했습니다.

지옥에 가서 어머니 구해

3년 후, 나복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사람들이 청제 부인의 악행을 들러주었습니다. 나복이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어보자 어머니는 거짓말과 함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질 일만에 지옥에 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질 일 후 죽고, 아버지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복은 장사로 번 모든 재산을 이웃에 나누어 주고 친구인 사리불 존자와 함께 출가하여 육사외도의 하나인 산자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목건련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육신통을 얻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목건련 존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관(觀)해보니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건련 존자는 안타까움에 부처님에게 청하여 칠월 보름 안거 해제 때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냈습니다.

이처럼 목건련 존자의 신통은 큰 효심으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목건련 존자는 효행제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35년 전, 제가 수원 용주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용주사는 정조 대왕이 부친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두번째 강좌에서 정무 스님은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의 삶과 사상에 대한 강의를 통해, 가정은 국가의 핵심이며 효가 살아야 가정도 국가도 더불어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장현제자의 능을 쓰고 건립한 원찰입니다. 정조는 보경 스님에게서 <부모은중경>을 받아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뜻에서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시골 처녀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현모양처는 여성의 적'이라는 망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도 버리고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여성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핵입니다. 핵이 무너지면 국가가 변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진국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 분규로 세상의 질병과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면 그 밑의 자녀들은 문 제없습니다. 효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며, 인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 문화는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은중경>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으로 숭배수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교육

효심이 불심, 효행은 인간 완성 · 성불의 길 화목한 가정 만들기 온가족 함께 노력해야

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교육, 부모노릇이 더 문제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모 자격증 제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면 부부부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부부 자격이 있으면 부모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평생 '친구'로 살아야

부부가 되려면 남녀가 서로 만나야 하는데 만남에는 정(情)보다 지성(知性)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여섯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과식(過食)하는 사람입니다. 알뜰 중독은 정신병과 같습니다. 셋째는 과음(過飲)이며 넷째는 과로(過勞)입니다. 술 데없이 피곤하게 설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섯째 과태(過怠)로 게을러도 안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이 너무 짙은 화장을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이 여섯 가지에 눈을 뜨고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후에 이혼 도장 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친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정으로 살고, 도반으로 살고, 동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은중경>에서 설한 열 가지 부모님 은혜를 잘 새겨서 부모 의무를 다하도록 하세요.

열 가지 부모님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에 품어 목숨 길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2. 낳으실 때 심한 고통 참아내어 견뎌 준 은혜 3. 갓난 아이 낳은 뒤에 모든 근심 잊은 은혜 4. 쓴 건 꿀과 자기 먹고 단 것 찾아 먹인 은혜 5. 젖은 자리 갈아주고 마른 자리 누신 은혜 6. 젖과 밥과 약으로써 양육하여 주신 은혜 7. 더러운 것 싫다 알고 갈아주고 씻긴 은혜 8. 길 떠나면 올 때 까지 걱정하며 애 쓴 은혜 9. 자식위해 목숨

짓도 마다않고 하신 은혜 10. 장성해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신 은혜.

부모가 되었으면 태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 공자님도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큰 스승님 십 년 공부 삼 년 부모 교육만 못하고, 삼 년 교육은 어머니 뱃속 열 달 교육만 못하며, 열 달 어머니 교육은 하루 밤 부모님 음식만 못합니다.

우리가 효도하게 되면 공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면 성실해지고, 건강 장수하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항상 마음이 편하며, 내생에는 선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음주 도박하다가 못하며, 처자편에 하다가 부모한테 소홀하고, 유희방탕으로, 그리고 범법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면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살면 노인문제 안생겨

불효를 하게 되면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다섯 가지입니다. 못된 놈이라는 악명이 유포되고, 신심이 불안하며, 정법에 인연이 없고, 자기도 불효를 받고, 죽어서 아버지쪽에 떨어집니다. 부처님은 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부모를 보되 자기 부모같이 보아야 보살이라 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이가 보살이다"

효심이 불심이며 효행이 부처님 행인 것입니다. 효행은 만 가지 착한 일의 기본이며 천지신명을 다 섬겨도 부모님 잘 섬김만 못합니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혜 총명한 자가 있어 생사의 저 언덕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응당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 섬겨서 신인 듯 받들어야하며 부모님 생각대로 기쁘게 해드리면서도 부모님 재산을 탐하거나 아첨하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착한 것의 최상은 효도만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의 최상은 불효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이 살면 노인문제도 안 생깁니다. 자녀문제도 안 생깁니다. 부지런히 열불하고 수행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 효를 실천하는 사람

입니다. 불교에서 효행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기본 교육입니다. 효행은 인간성 회복의 길이며 인간 성숙의 길이고 인간 완성, 성불의 길입니다.

요즘은 불효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부모를 내다 버리고 가기 일쑤입니다. 예전에는 관공지에 버렸는데 요즘은 요양원에 버린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부모님과 일체중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했습니다. 성불하시고 먼저 가비라성에 가서 부왕 정반왕을 위해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반왕의 청에 따라 모친을 위해 도리천궁에서 90일간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위시해서 역대조사가 효심 없이 도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효심이 곧 불심입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효 문화로 선비의 나라, 군자의 나라, 보살의 나라, 부처님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질의응답

문 : 부모자격과 효에 대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덧붙여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 경전에서 부모는 숭배수범하라. 자녀에게 악을 짓지 않게 하고, 착한 것을 가르치고, 때 되면 좋은 배필을 정해주며,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잘못은 냉정히 반성해 보면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꼭 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데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제재하면 평생 인격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입시 때가 되면 부모를 피해 절로 도망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기대에 따라 가지 못해서입니다. 자녀의 능력에 맞춰 지 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 전 착실한 아이가 작은 잘못을 했다고 어머니가 '나가 죽어라!' 했는데 한시간도 안되어서 죽었습니다. 자녀가 불효를 한다해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 사진=이준영 기자

거룩하신 승보(僧寶)에 공양하는

가사불사



삼보에 지성으로 귀의하오며, 모든 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을 맞아 불사 중의 으뜸 공덕인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사는 삼보 가운데 하나이신 스님들의 청정한 계율을 상징하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을 담아 수하는 불교전통의복입니다. 이 가사를 지어 스님들께 공양함은 공양중에 최상의 공덕입니다. 이번 가사불사에는 불자들이 직접 제작에 동참하여 순수 지은 가사를 스님들께 봉헌하게 됩니다. 승가에 대한 존경과 깨달음을 향한 정진으로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아가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 · 사 · 안 · 내

- 입재 : 9월 4일(일, 음8.1)
- 회향 및 점안법회 : 11월6일(일, 음10.5)
- 제작 : 가사당(신도회관 옆)
- 접수 : 신도회 사무처 02)732-2187

동 · 참 · 안 · 내

- 일반동참 : 10만원
- 9조가사 : 30만원
- 19조가사 : 50만원
- 25조가사 : 100만원
- 문의 : 조계사 포교국 02)732-2183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